

# 니트웨어의 발달과정과 착용실태에 관한 연구

- 서울시내 거주 주부와 여대생을 중심으로 -

신구전문대학 의상학과  
강사 손희정  
성신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교수 이순홍

目 次	
I. 서론	1. 조사 내용
II. 니트웨어의 일반적 고찰	2. 조사 결과의 분석
1. 역사적 고찰	IV. 결 론
2. 종류	참고문헌
III. 니트웨어의 착용실태에 관한 조사 분석	

## I. 서론

니트(Knit)는 한 가닥의 실로써 한 고리에서 또 다른 하나의 고리가 만들어져 연속적으로 구성된다. 현대문명이 고도의 과학 기술로 인해 새로운 문화를 계속 창조하고, 인간의 사고와 추구하는 생활 의식 또한 시대 흐름에 의해 급속히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면에, 인류 발생과 더불어 시작되어 현재까지도 꾸준히 애용되고 있는 단순하고도 기본적인 기술이다.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니트는 「따뜻하다」라는 실용적인 가치에서 우리의 곁에 머물고 있었으며, 전통적인 기법들에 의해 우리들의 의생활에 보급되고, 전승되어 왔다.

현대의 산업 중에서 인간의 생활 욕구충족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 분야인 패션 산업은, 국제 동화 현상에 따라 현대 문명 세계의 진전에 부응하고 있다. 이는 세계 여러 국가간의 정보·기술·교류 등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패션 수용기간의 단축화, 다양한 스타일의 동시 출현, 패션 사이클의 가속화 현상이 바로 그것이다. 패션에 있어서 점점 다양화·고급화로 개성을 나타내려고 하는 고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의류생

산기업 및 메이커에서는 다품종 소량생산을 기획하고 있으며, 이 기획상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은 다양한 고객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디자인의 개발과 빠른 공급이라 하겠다.

한편,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패션 경향에 두드러지는 현상을 보면, 다양한 구성 방법에 의해 꾸준히 개발되어 온 직물에 비해 현대 패션에 대한 고객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니트웨어가 부상되어 개발·수용되고 있다. 직물과 마찬가지로 원사에 의한 변화, 조직에 의한 변화, 실루엣에 의한 변화 등 다양한 변화로 디자인의 개발에 있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고 있어, 니트웨어(Knitwear)가 우리나라 패션 산업의 도약화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리라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패션계에 주목이 되고 있는 니트웨어에 대한 착용 실태를 조사하여, 우리나라에서의 니트웨어에 대한 선호 정도 및 선호하는 디자인, 그리고 앞으로의 개발 가능성의 기대 정도 등을 분석하여 니트웨어에 대한 복식 디자인의 창안에 기여하고자 한다.

우선 니트웨어에 대한 현대 패션에 있어서의 위치 및 개발 가능성을 타진해 보기 위해서, 문헌을

통하여 니트웨어의 기원 및 종류를 고찰하여 그 개발정도 상태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또한, 설문지 조사를 통하여 니트웨어의 착용실태에 대해 조사하여 통계학적으로 나타나는 변인에 따른 관계를 살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니트웨어의 착용 실태에 대한 설문지 조사에 있어서 통계 분석을 위한 대상을 서울 시내에 거주하는 20대에서 50대까지의 기혼 여성과 여자 대학생으로 한다.

## II. 니트웨어의 일반적 고찰

「편물」·「뜨는 것」·「뜨기 세공」·「메리야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sup>1)</sup> 니팅(Knitting)은 산스크리트(サンスクリット:梵語)의 그물이나 실을 짜거나 바구니를 뜬다고 하는 의미를 가진 「Nahyat」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어원을 찾을 수 있다.<sup>2)</sup> 고대 영어 단어인 「Cynttan」, 「Knetten, Netten」, 「Chitten」, 「Knotten」 등을 들어 그들 단어는 「꼭 매단다」 또는 「이어 맞춘다」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 사용하고 있다.<sup>3)</sup> 즉, 이것은 원래 어떤 뜨기 기법이라도 루프를 기본으로 이어진 한 가닥의 실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 조건이다. 따라서 이은 자리가 있거나 없거나, 또 기계로 만들거나 손으로 만들거나 또는 어떤 소재를 사용하더라도 실 상태로 되어 있으면 상관없는 것이다.<sup>4)</sup>

며서 만들어진 옷의 총칭인 니트웨어는 손뜨기의 것과 기계뜨기의 것이 있으며,<sup>5)</sup> 생산 방법에 따라서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한 가지는 편직된 편포를 이용하여 직물과 같이 패턴을 사용하여 재단을 하여 재봉하는 것(cut and sewn)이며, 다른 한 가지는 각 조각이 설계되어 형태를 이뤄가면서 편직되는 풀 패션(full fashion) 방법이다.

### 1. 역사적 고찰

#### 1) 편물의 발생

편물이 언제, 어디서 시작됐는지는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한 만큼 명확하게 제시할 수가 없다. 리프스라는 독일의 민족 학자는 뜨는 것과 짜는 것이 인류가 알아 낸 가장 오랜 수공이며, 이 두가지의 기법이 중요한 것은, 미개인들이 식량이나 재물을 모우거나 간수하는데 쓴 바구니나 광주리 등의 용기에 무척 신경을 써서 훌륭한 것을 만들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고, 거기에서 편물의 기술적 원리가 추출되어 나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고 하였다.<sup>6)</sup>

이러한 두가지의 중요한 기법인 뜨는 것과 짜는 것, 즉 편물과 직물에 대해서도 어느 것이 먼저 발생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정설은 없다. 그러나 편물이 직물보다 먼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최초에는 침녕쿨이나 동굴의 힘줄 등을 손가락으로 얽어 매는데서 비롯되어 대바늘 뜨기보다 코바늘 뜨기가 더욱 먼저라고 생각된다.<sup>7)</sup>

뜨기 기법의 초기 발달 형태로서는 북구의 Sprang 이 있고, 이는 직물보다 훨씬 풍부한 탄력성을 지니고 있으며, 일반적인 편물과 다른 점은 엮은 바탕실이 편물이 수평인데 반해 Sprang은 수직이라는 것이다(그림 1). 이 Sprang천의 기원은 아마도 기원전 1500~1000년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으며, 이집트나 스칸디나비아에서 발견된 초기의 섬유 조각에서 볼 수 있다.<sup>8)</sup>

1946년 잉카 제국의 「와카·푸리엠타」 유적에서 약3000점의 섬유 제품이 발견되었는데, 그 4분의 3은 안데스 지대에서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온 편성물이었으며, 이 잉카의 와카·푸리엠타 지층은 기원전 2370~2578년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가장 오래된 예로서는 고대 이집트의 기원전

1) 田中千代, 「服飾事典」, 東京: 同文書院, 1969, p. 618.

2) Eve Harlow, *The Art of Knitting*, 東京: (株)日本ヴォーグ社, 1979, p. 10.

3) 상계서, p. 10.

4)シルバ編物研究會, 「編物教科書」, 東京:シルバ編物研究會總本部, 1969, p. 2.

5) 田中千代, 전계서, p. 618.

6)シルバ編物研究會, 전계서, p. 2.

7) 이순홍외, 「편물」, 서울: 문교부, 1987, p. 3.

8)シルバ編物研究會, 전계서, p. 3.

5000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금석 병용 시대(金石併用時代)인 파타리기의 발굴물 중에서 편성물이나 천에 쌓여진 여러가지 동물이 발견된 것이다.<sup>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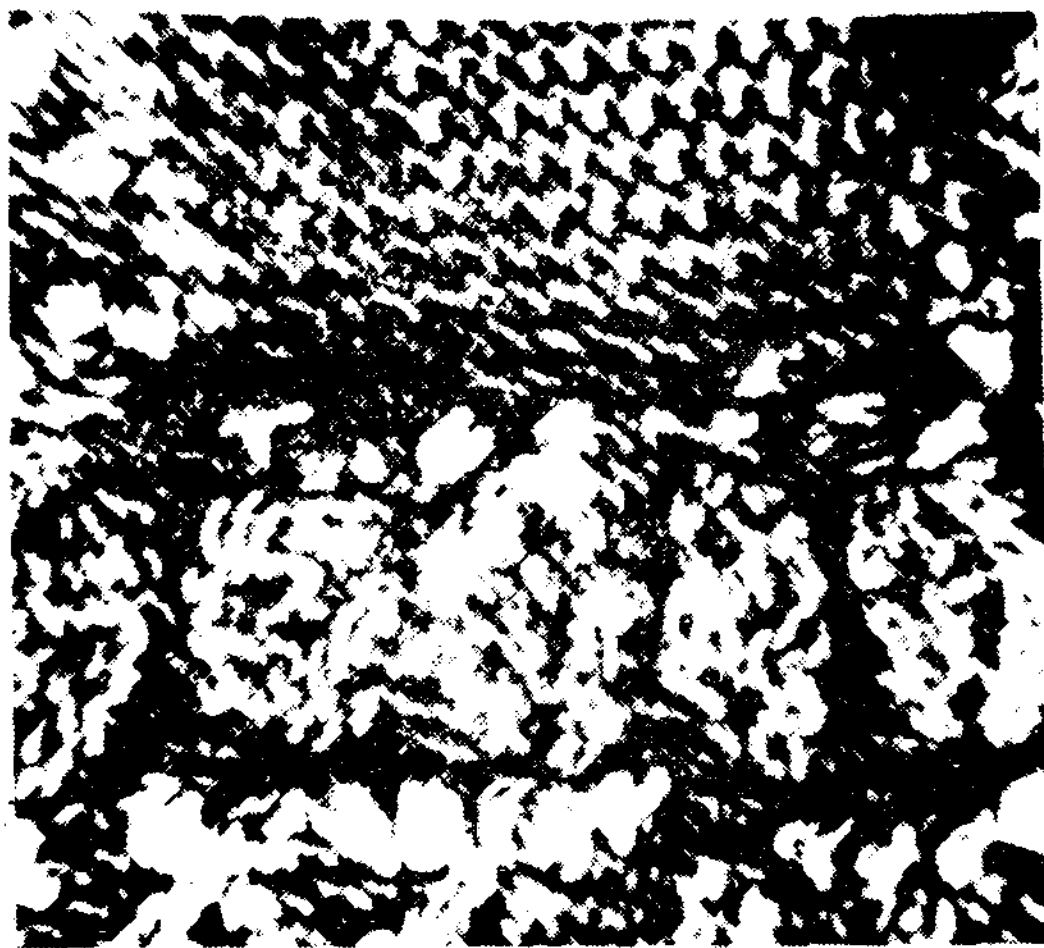
2) 고대

중동지역 근방이 「편성물의 발상지」로서 추측되고 있으며, 실제 이집트의 바나샤(Bahnasa)에서는 기원후 4C~5C 무렵, 가장 오래된 편성물의 일부분으로 여겨지는 물건들이 발견되고 있다.<sup>10)</sup>

최고의 유물은 기원전 5000년대로 추정되는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레이스 편성물로 생각되며,<sup>11)</sup> 기원전 300~200년경 아랍인들이 편성물 바늘을 사용하여 뜬 샌들용의 발가락 달린 짧은 양말<sup>12)</sup>이 발견되었다.



〈그림 2〉 듀라·유로바의 편성물 조각 (2C반 이전)  
(シルバ編物硏究會, 「編物教科書」, p. 4.)



〈그림 1〉 Sprang의 부분 확대  
(シルバ編物硏究會, 「編物教科書」, p. 3.)

1C~2C에 이르러 고대 페루와 터키 고분에서 편성물이 발견되었으며, 2C 중반 이전의 것이라 확인되어진 고대 시리아의 고도(古都) 듀라·유로바의 세계의 편성물 조각은 크로스드 이스턴 스티치(동방 십자가)라 이름지어진 기법으로 되어있다(그림 2).



〈그림 3〉 곱트인의 양말과 뜨는 방법  
(Eve Harlow, The Art of Knitting, p.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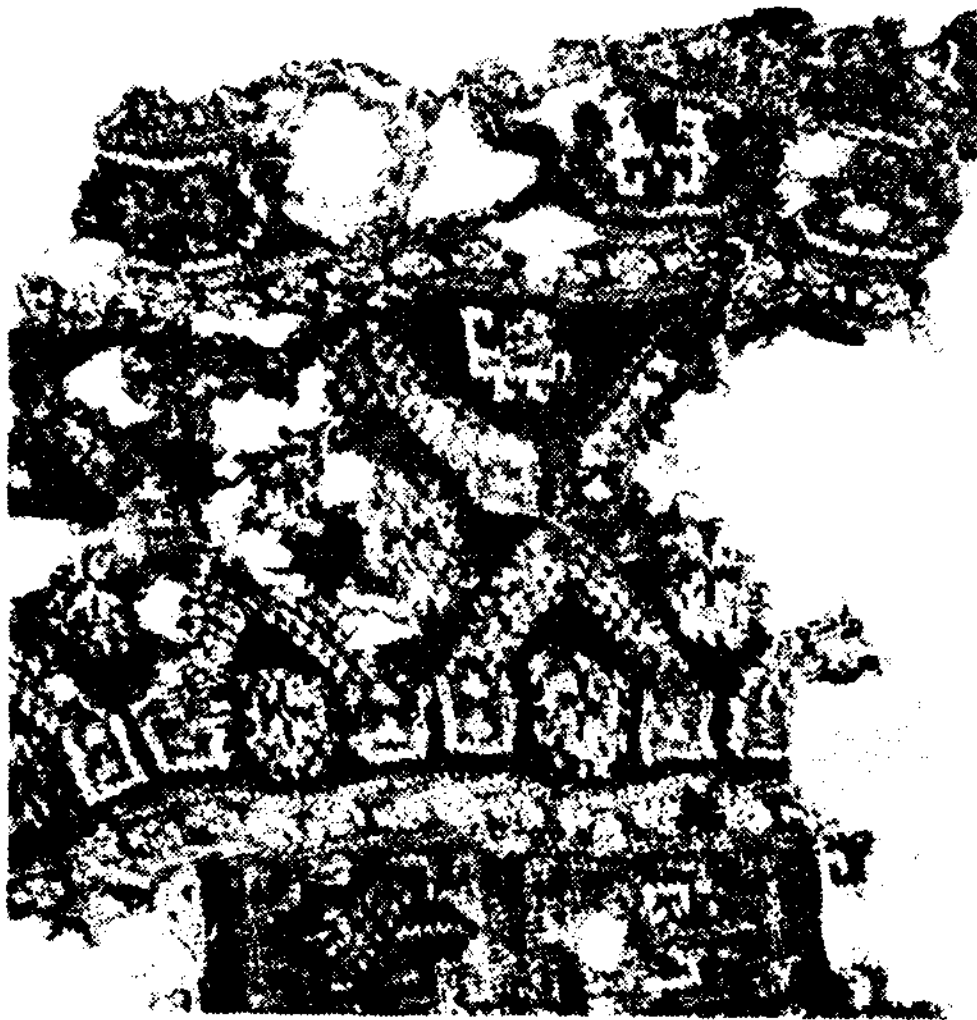
9) 상계서, p. 3.

10) Eve Harlow, op. cit., p. 49.

11) 이순홍, 「기초 편조」, 서울: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1979, p. 1.

12) Eve Harlow, op. cit., p. 12.

고대 이집트의 분묘 속에서 발견된 곱트인의 완전한 원형을 지닌 손으로 뜨 양말 한 켤레는 4 C 전후의 편성물이라 보아지며, 동시대의 인형과 그에 따른 모자, 백도 발견되었다. 또한 곱트인들의 양말은 발에 잘 맞도록 고안이 되어 있으며, 뜨는 방법 역시 아주 진보된 기술로서 제작되어져 있고 (그림 3), 배색과 기하학적 무늬가 표현된 양말의 단편 조각도 발견되었다(그림 4).



〈그림 4〉 이집트 바나사의 편성물 단편  
(Eve Harlow, The Art of Knitting, p. 90.)

3) 중세와 근세

7C 중반에 아라비아인들의 이집트 정복으로 기술 교류가 시작되었고, 이슬람 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점차 유럽 각 지역에 퍼져 가기 시작하면서 편성물이 전파되었다.

로마네스크 시대의 이슬람 양식의 니트웨어는 모두 정교한 무늬 뜨기의 것이며, 그 시대에 많이 사용된 아라비아 문자도 도안화되었다(그림 5).

이러한 편성물들은 이제까지 일부의 상류 계급의 사치품으로 사용되어 왔을 뿐이었으나, 14~15C의 고딕 시대에서 16C의 르네상스 시대를 걸쳐 일반에게 알려지기 시작하였다.<sup>13)</sup>

9C 초 이집트의 무어인들에 의해 스페인에 들어

온 편성물은 선교사들에 의해 보급되었고, 견이나 광택있는 실로 아름답게 짜여진 편성물들이 이태리로 전해졌다.



〈그림 5〉 이슬람풍의 편성물  
(シルバ編物研究會, 「編物教科書」, p. 5)

종교적인 유대를 매개로 하여 보급되어진 독일의 편성물은 1417년 경부터 시작되었으며, 성모 마리아의 4개의 바늘을 사용하여 편성물을 하고 있는 모습이 제단화에 나타나 있는 것으로 편성물 기술의 전파 방법을 알 수 있다(그림 6). 초기에는 면·마·모사로 뜨여졌으나, 이윽고 스페인과 이태리에서 실크 양말이 수입되자, 점차 사치스러워져서 몇 번씩이나 금지령이 내렸다.<sup>14)</sup>

프랑스에서는 1527년 처음으로 파리에서 견과 양모 제품의 양말을 판매하는 산업이 시작되었고, 길드가 활성화되었다.

영국의 편성물은 1552년경 수편공업이 형성되어<sup>15)</sup> 발달하였으며, 비싼 귀중품으로 유행하였다. 이 시대의 남자들은 옷 길이가 짧은 두브레와 함께 허리 바로 아래까지 오는 긴 호즈를 신게 되었는데

13)シルバ編物研究會, 전계서, p. 6.

14) 상계서, p. 6.

15) Eve Harlow, op. cit., p. 21.



데, 이는 니팅의 발달로 인하여 다리에 주름이 잡히지 않고 잘 맞는 양말로 양쪽 다리의 색이 다른 것, 무늬가 있는 것 등이 있었고, 16C 중반이 되어 영국에도 스페인으로부터 실크로 뜬 양말이 들어왔다.

또한, 이 당시에는 양말만이 편성물이었던 것은 아니고, 편성물로 된 펠트 모자, 편성물로 된 상의(그림 7~8)도 제작되었다.<sup>1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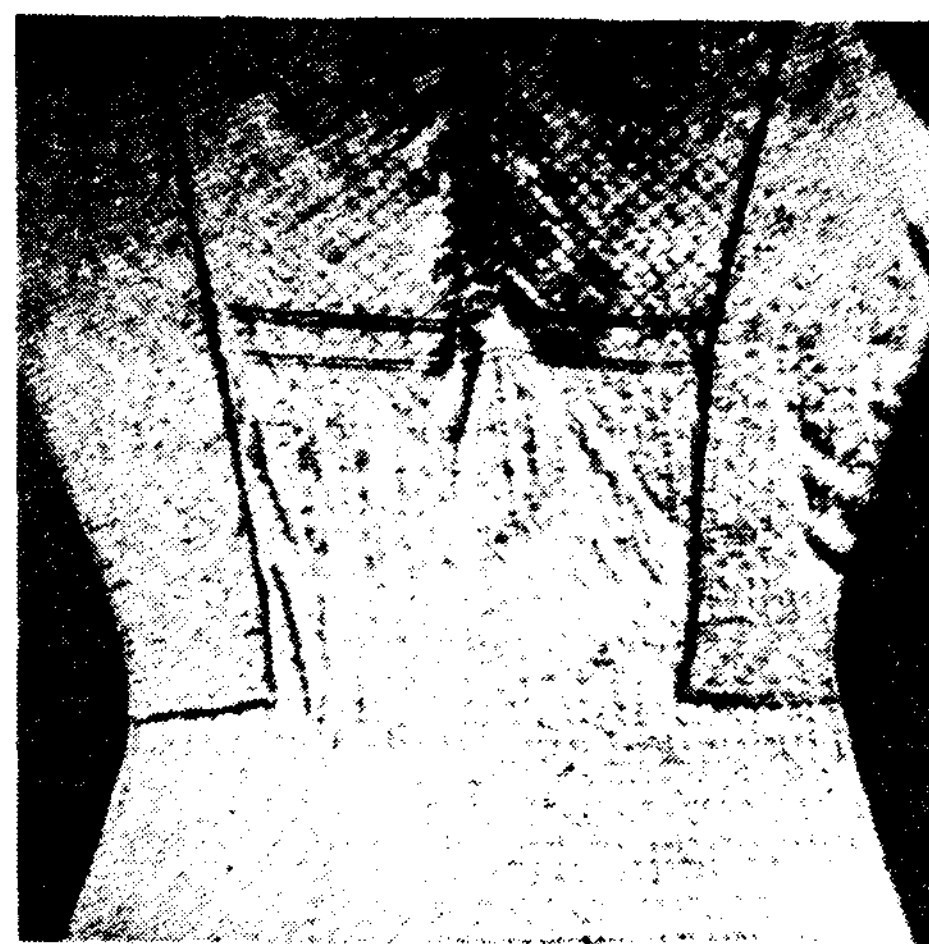
1589년 영국의 목사보 William Lee에 의하여 양말 편기가 발명되면서 오늘날 크게 발전된 기계적인 편성의 역사가 시작되었다.<sup>17)</sup> 이것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일정하게 둥글게 뜨는 기계를 고안해 낸 것<sup>18)</sup>으로 17~18C를 통해 메리야스 산업으로 옮겨가게 하였다. 그 후 계속적인 편기의 개량과 발명으로 1758년에는 리브편기, 1775년에는 경편기가 Crane에 의해서 발명되어 수편 산업의 쇠퇴를 가져오게 하였다.



〈그림 7〉 면으로 된 편성물 상의(16C)  
(シルバ編物研究會, 「編物教科書」, p. 8.)



〈그림 6〉 니팅을 하는 성모  
(Eve Harlow, The Art of Knitting, p. 15.)



〈그림 8〉 Charles I세가 착용한 견사로 된 편성물 상의(1649년)  
(シルバ編物研究會, 「編物教科書」, p. 8.)

#### 4) 현대

기계 편기의 발명으로 인한 대량 생산의 영향이 수편성물의 쇠퇴를 가져왔던 근세말에서, 19C 후반이 되자 자연주의와 현실주의를 배경으로 한 새로

16) シルバ編物研究會, 전계서, p. 9.

17) 한국섬유공학회, 「섬유제품 지침서-스웨터」, 서울: 한국섬유산업 연합회, 1988. p. 14.

18) シルバ編物研究會, 전계서, p. 9.

운 크라프트 운동이 일어났다.<sup>19)</sup> 이 운동은 손뜨기를 다시 유행시켰고, 편성물에 관한 여러가지 잡지와 교과서가 출판되기 시작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에 의해 보온성·신축성 등을 가진 편성물은 그 수요가 증가하였고, 소품이나 속 옷의 범위내에서 한정되었던 것이 1920년 경 현재의 스웨터가 유행하면서 부터, 편성물이 복식 유행의 세계에 등장하여 성장하게 되었다. 그 모드를 세계에 처음 끌어 들인 것이 1920년대의 프랑스 디자이너 Chanel이었다.<sup>20)</sup>

또한 제2차 세계 대전 후 합성섬유의 출현과 편기 및 전자 공업의 발달에 따른 고무 편기의 출현, 그리고 1960년대에 비롯된 전자식 무늬 작성 방식의 실용화 등, 눈부신 발전이 이뤄졌으며,<sup>21)</sup> 최근에는 컴퓨터에 의한 기계 작동화로 다양한 무늬 및 편성과 제작이 디자인 구상의 다채로움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 2. 종류

신축성이 좋고 유연하여 실루엣(Silhouette)을 잘 살릴 수 있으며, 제작시 소재의 이용 및 조직의 선택 범위가 높아 패션(Fashion)성의 가치가 높은 편성물은 크게 수편성물과 기계편성물로 구분된다. 수편성물은 수편기나 손뜨기로 뜨는 것이며, 기계편성물은 공업용 기계로 편직하는 것이다.

수편성물에는 위메리야스를 두개 또는 네개의 대바늘로 뜨게질하는 대바늘뜨기와 코바늘을 사용하여 뜨게질하는 코바늘뜨기 그리고 대바늘뜨기와 코바늘뜨기의 두가지 수법의 특징을 살린 아프간뜨기가 있다. 또, 꼬임이나 땀는 방법 그리고 편성 원리에 의해 만들어지는 투공조직의 장식용 천인 레이스뜨기가 있으며, 이 레이스뜨기는 다시 헤어핀 레이스(Hair Pin Lace), 마크라메 레이스(Macramé Lace), 테너리이프 레이스(Teneriffe Lace)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대바늘 뜨기의 원리를 기계의 기능을 빌어 손쉽게

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한 기계뜨기에는 손으로 핸들을 작동시키는 수편기와 기계 작동 조작에 의한 기편기로 구분하며, 니트의 조직 구조인 위편과 경편으로도 분류한다(표 1). 편성물의 종류는 니트웨어라고 표현하는 아우터웨어(Outerwear), 언더웨어(Underwear) 또는 소품인 모자, 장갑, 스톨, 양말 등이 있고, 장식의 효과를 살리는 장식용품 그리고 예술의 가치를 부여한 예술 작품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1980년대의 패션 경향에 니트웨어에 대한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니트웨어의 종류 또한 더욱 다양해졌다. 이 현상은 1968년도에 발행한 Textile World Year Book의 한 조사에서 직물류와 편성류의 需要比가 1968년에는 65% : 28%이었던 것이 2068년에는 17% : 55%로 될 것이라고 推計 및 전망하고 있다<sup>22)</sup>고 밝힌 것에서도 알 수 있으며, 이 추세에 부응하는 다양한 종류의 니트웨어 및 디자인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니트웨어의 착용 범위 면에서의 변화를 보면 옛날에는 실용적인 측면의 보온성이 강조되어 언더웨어가 주종을 이뤘었다. 그러나 점차 경제 성장과 함께 패션 산업에 대한 요구가 다양해지면서, 니트웨어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게 되었으며, 패션화를 추구하는 요구는 다양한 아우터웨어의 개발 현상으로 나타났다. 즉, 아우터웨어에 있어서 일상적인 풀오버(Pullover)나 가디건(Cardigan) 이외에도 단독 품목인 코트, 원피스와 투피스, 자켓 등 그 종류가 다양하게 발달되어, 직물류가 표현하는 대부분의 품종이 표현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스포츠웨어에 있어서는 신축성과 유연성으로 신체에 안락감을 주는 니트의 특성 때문에 편성류가 표현할 수 있는 독점 품목이기도 하였으며, 니트의 단점인 run발생과 중량감을 보완하기 위해서 트리코트(Tricot)직과 같은 조직의 이용과 소재 개발에 따른 가벼운 편성물의 제작으로 더욱 활성화 되었다.

니트제품이 이렇게 활성화된 것은 기계시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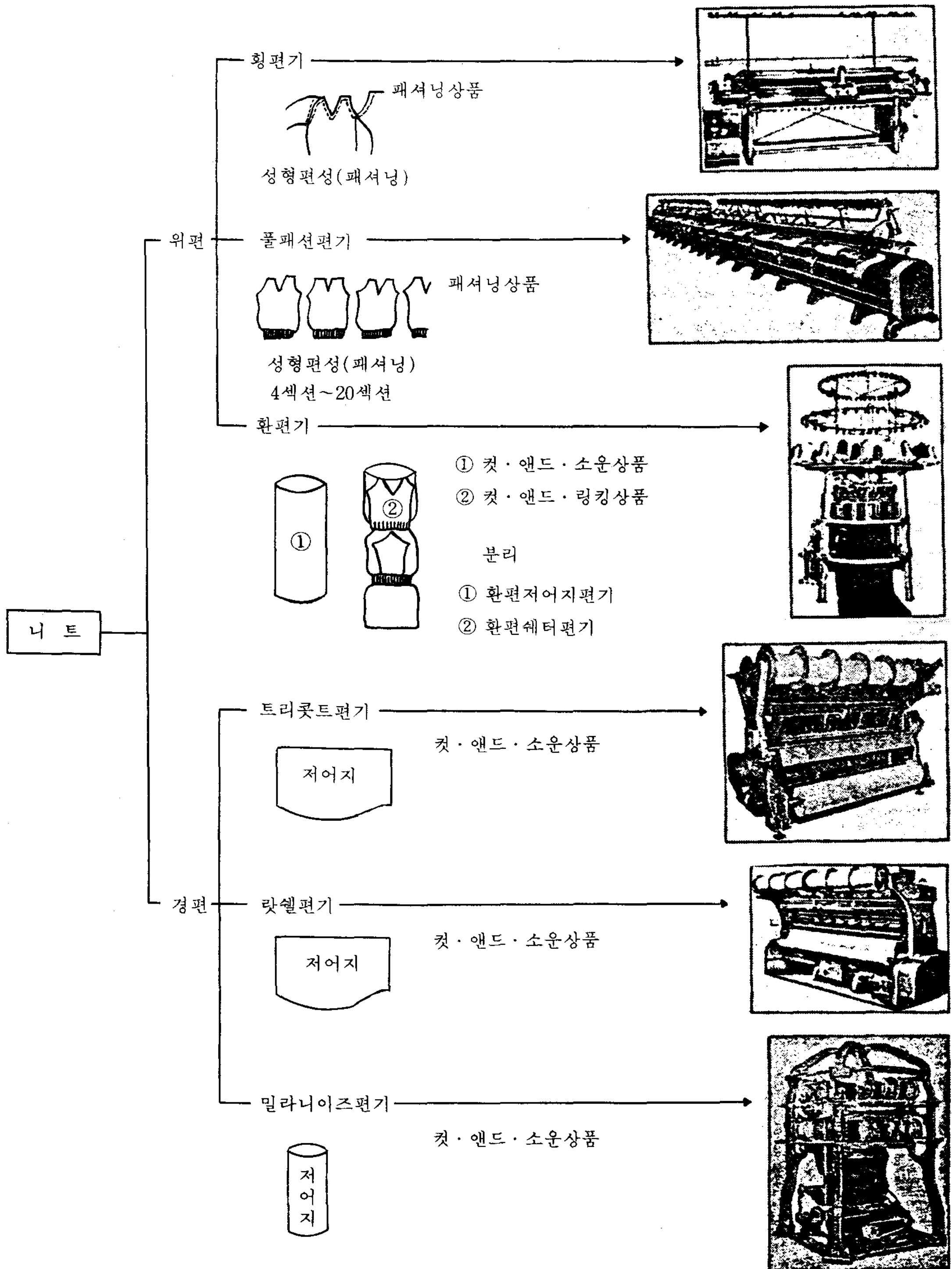
19) 상계서, p. 9.

20) 상계서, p. 10.

21) 김은숙, "위편직물의 편환밀도에 따른 물성변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1987, p. 6.

22) 한국섬유산업 연합회, 「纖維産業再跳躍의 길」, 서울 : 한국섬유산업 연합회, 1984, p. 402.

<표 1> 편기와 제품<sup>23)</sup>



23) 한국섬유산업공학회, 「섬유제품 지침서-편물제 셔츠」(서울: 한국섬유산업연합회, 1988), p. 11.(이순홍)

자동화와 신소재의 개발 및 외국의 다양한 소재의 수입에 따른 니트제품의 다양화, 고급화현상 때문이다. 직물류와 유사한 느낌의 표현효과를 위하여 실루엣과 조직을 다양화 시킨 점도 있으나, 편성물만이 표현할 수 있는 독특한 효과들이 패턴디자인 (Pattern Design)의 활성화와 함께 패션성이 높은 디자인이 출현되어 작품 수준을 향상시켰기 때문이다. 그리고 니트웨어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의와 하의 그리고 걸옷을 조화시켜서 입을 수 있으며, 가죽이나 모직물 등의 직물류와도 잘 조화가 되고, 금속 등의 신소재와도 조화를 이뤄 다양한 연출을 시도할 수 있다. 또한, 고급 니트웨어 제품의 시장이 주택가 중심의 니트웨어 전문 맞춤점에서 백화점 등의 대형 유통점으로 진출함에 따라 직물류와 함께 진열대에 동시에 진열되어 선을 보이게 되면서 나타나는 경쟁력이 니트웨어를 단독 품목뿐만이 아닌 토탈패션(Total Fashion)으로 성장하도록 다양화시켰다.

### Ⅲ. 니트웨어의 착용 실태에 관한 조사 분석

#### 1. 조사 내용

니트웨어에 관한 선호·관심·전망, 소유 실태, 선택 기준 등을 중심으로 하여 니트웨어의 착용에 관한 실태를 분석하고자 다음과 같이 조사 설문지를 만들어 조사를 실시하고 통계 처리하였다.

##### 1) 조사 설문지의 작성

본 조사에 사용한 설문지는 연구자가 작성한 설문 내용을 1988년 6월 1일부터 1988년 6월 25일까지 2회에 이르는 수정·보완을 거쳐 완성하였다. 조사에 사용된 설문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설문 문항의 구성

문 항 내 용	문 항 수
니트웨어에 관한 선호·관심 및 전망	7
니트웨어의 구입·소유·착용실태	6
니트웨어에 대한 선택 기준	10
니트웨어에 대한 지식과 참고 의견	6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7
계	36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에는 나이, 결혼 여부, 학력, 직업, 소득(세대별), 용돈, 소유 의복의 수 등 7개항이 포함되고, 니트웨어에 관한 선호도와 관심도 및 전망은 7개 사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선호 부분에서는 제작기법 및 제작 소재에 대한 의견을 포함시켰다. 니트웨어의 구입·소유·착용 실태에 대하여는 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니트웨어의 선택 기준에 대한 문항은 일반적 디자인, 조직 짜임새, 무늬, 장식, 색상, 배색, 실루엣 등을 포함하는 1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그 밖의 니트웨어에 관련된 참고 의견 6개 문항은 본 연구에 참고가 되도록 구성하였다.

##### 2) 조사 설문지의 수집

조사 대상은 서울 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와 여대생(전문대학 재학 이상)으로 제한하였다. 조사에는 연구자를 포함하는 16명의 조사자가 참여하였으며, 1988년 7월 31일부터 1988년 8월 14일까지 총 480부를 배부하였고, 435부를 회수하였다. 회수율은 90.6%였다. 이 중 부실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본 조사의 자료로서 사용 가능한 353부(73.5%)를 분석하였다. 자료의 회수 및 선별 과정에서 탈락이 다수 나온 것은 니트웨어의 선택 기준을 묻는 문항에서 응답율이 저조했던 탓으로 여겨진다.

본 조사 대상은 주부와 전문대학 재학 이상의 여대생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성 전체의 의견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작성된 설문지도 연구자가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표준화된 것이 아니므로 연구상의 제한점이 있다.

##### 3) 조사 설문지의 처리

수집된 조사 설문지는 중앙 SVP에 의뢰, SPSS Package를 이용하여 전산 처리하였으며, 자료의 분석은 단순 집계(빈도분포·백분율), 크로스집계(백분율,  $\chi^2$ -검증)로 실시하였다.

#### 2. 조사 결과의 분석

#####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은 <표 3>과 같다.

조사 대상자의 나이는 20대가 52.1%로 가장 높았고, 30대(21.8%), 40대(15.6%), 50대(6.5%)의 순이었으며, 10대는 4.0%로 가장 낮았으며, 60대 이상은 한명도 없었다. 기혼 여성은 55.2%, 미혼 여성은 44.8%였다. 조사 대상자의 학력별로, 전체적으로는



초급대학·전문대학 재학 이상의 고학력자가 75.9%였다. 조사 대상자의 직업별 분포는 학생이 44.8%, 주부가 34.6%였으며, 전문기술직(8.2%)을 포함하는 각종 직업 종사자가 20.6%였다. 조사 대상자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은 100~149만원대와 150만원 이상이 똑같은 19.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60~79만원대, 80~99만원대의 순으로 고소

득 가정이 많았으며, 개인의 용돈은 6~10만원대가 36.5%로 가장 높았다. 또한 조사 대상자의 소유 옷벌 수는 10~15벌인 사람과 16~20벌인 사람이 각각 19.8%로 가장 높았다<표 3>.

조사 대상자의 빈도에 차이가 나는 것은 변수별 무응답을 Missing Data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구 분	N	%		구 분	N	%
나 이	20세 미만	14	4.0	소 유 옷벌수	10벌 미만	48	13.6
	20~29세	184	52.1		10 ~ 15벌	70	19.8
	30~39세	77	21.8		16 ~ 20벌	70	19.8
	40~49세	55	15.6		21 ~ 25벌	36	10.2
	50~59세	23	6.5		26 ~ 30벌	38	10.8
	60세 이상	0	0.0		31 ~ 40벌	30	8.5
	계	353	100.0		41 ~ 50벌	32	9.1
결 혼	기 혼	195	55.2		51벌 이상	29	8.2
	미 혼	158	44.8		계	353	100.0
계	353	100.0	소 득		20만원 미만	4	1.1
학 력	국민학교 졸업	2		0.6	20 ~ 29만원	4	1.1
	중학교 졸업	9		2.5	30 ~ 39만원	14	4.0
	고등학교 졸업	72		20.4	40 ~ 49만원	28	7.9
	초급·전문대학 재학	4		1.1	50 ~ 59만원	39	11.1
	초급·전문대학 졸업	21		5.9	60 ~ 79만원	66	18.7
	대학교 재학	156		44.2	80 ~ 99만원	49	13.9
	대학교 졸업	70		19.8	100~149만원	70	19.8
	대학원 재학	3		0.9	150만원 이상	70	19.8
	대학원 졸업	14		4.0	기 타	9	2.6
	기 타	2	0.6	계	353	100.0	
계	353	100.0	개 인 용 돈	1만원 미만	7	2.0	
직 업	상공자영업	9		2.5	1 ~ 3만원	33	9.3
	경영관리직	2		0.6	3 ~ 6만원	74	21.0
	전문기술직	29		8.2	6 ~ 10만원	129	36.5
	사무직	10		2.8	10 ~ 20만원	62	17.6
	기능직	4		1.1	20 ~ 30만원	22	6.2
	노무직	0		0.0	30만원 이상	21	6.0
	판매서비스업	4		1.1	용돈 없음	5	1.4
	자유업	8		2.3	계	353	100.0
	학생	158		44.8	주 부	1만원 미만	7
	기 타	7	2.0	1 ~ 3만원		33	9.3
주 부	122	34.6	3 ~ 6만원	74		21.0	
계	353	100.0	6 ~ 10만원	129		36.5	
			10 ~ 20만원	62		17.6	
			20 ~ 30만원	22		6.2	
			30만원 이상	21		6.0	
			용돈 없음	5		1.4	
			계	353		100.0	

2) 니트웨어에 관한 선호·관심 및 전망

니트웨어에 대한 선호는 <표 4>에서 보는 바와같이 높은 편이었으며, 그 이유는 「입기에 편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고(44.8%), 「입어서 개성을 살릴 수 있다」는 의견도 다음으로 높았다(20.1%) <표 5>.

<표 4> 니트웨어에 대한 일반적 선호도

선택문항	N·%	N	%
아주 좋아한다		63	17.8
좋아하는 편이다		196	55.5
그저 그렇다		80	22.7
싫어하는 편이다		12	3.4
아주 싫어한다		1	0.3
무응답		1	0.3
계		353	100.0

<표 5> 니트웨어를 좋아하는 이유

선택문항	N·%	N	%
입기에 편하므로		116	44.8
몸에 어울리게 입을 수 있으므로		38	14.7
입으면 따뜻하므로		10	3.8
입어서 개성을 살릴 수 있으므로		52	20.1
자기가 떠서 입을 수 있으므로		15	5.8
니트웨어가 유행을 타고 있으므로		2	0.8
기 타		10	3.8
무응답		16	6.2
계		259	100.0

※ 전항 물음의 아주 좋아한다, 좋아하는 편이다에 응답해 준 259명에 대한 선택 문항의 결과임.

니트웨어에 대한 관심도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들의 경우 「전에 비해 관심이 많아진 편이다」가 45.9%로 나타났고 <표 6>, 일반 여성들의 관심에 대한 의견으로는 「전에 비해 니트웨어를 많이 입는 것 같다」가 77.6%로 높았다 <표 7>. 또한 니트웨어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욱 개발되어 더 많이 입을 것이다」하는 의견이 66.0%로 높았다 <표 8>.

니트웨어에 대한 선호와 관심을 묻는 문항과

<표 6> 니트웨어에 대한 관심

선택문항	N·%	N	%
전에 비해 아주 관심이 많아졌다		67	19.0
전에 비해 관심이 많아진 편이다		162	45.9
전과 다름없다		109	30.9
전에 비해 관심이 적어진 편이다		14	3.9
전에 비해 관심이 아주 없어졌다		1	0.3
계		353	100.0

<표 7> 일반 여성의 니트웨어의 관심에 대한 의견

선택문항	N·%	N	%
전에 비해 니트웨어를 많이 입는 것 같다		274	77.6
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57	16.1
전에 비해 니트웨어를 입지 않는 것 같다		19	5.4
무응답		3	0.9
계		353	100.0

<표 8> 니트웨어에 대한 전망

선택문항	N·%	N	%
앞으로 더욱 개발되어 더 많이 입을 것이다		233	66.0
지금 정도의 수준으로 입을 것이다		112	31.7
지금보다도 더 입지 않을 것이다		5	1.4
무응답		3	0.9
계		353	100.0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과의 크로스 분석에서는 직업별로 볼 때, 관심에서만 유의적인 관계( $p < 0.05$ )가 보였다 <표 9>. 즉, 관심은 「학생층」(70.3%)에서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선호에 대한 백분율을 비교해 보면, 「직업을 가진 주부」(77.7%)와 「학생」(76.6%)이 「주부」(67.2%)보다 높음을 볼 수 있다.

한편 자신이 좋아하는 손뜨기 옷의 뜨기 기법으로는 조사 대상자의 83.3%가 「대바늘 뜨기」에 반응

<표 9> 직업별 니트웨어의 선호도와 관심

조사 항목	직업별 선택문항	직 업 인 ( 주 부 )	학	주	계
			생	부	
니 트 웨 어 에 대 한 선 호	아주 좋아한다	18 (25.0)	26 (16.5)	19 (15.6)	63 (17.9)
	좋아하는 편이다	38 (52.8)	95 (60.1)	63 (51.6)	196 (55.7)
	그저 그렇다	15 (20.8)	31 (19.6)	34 (27.9)	80 (22.7)
	싫어하는 편이다	1 (1.4)	6 (3.8)	5 (4.1)	12 (3.4)
	아주 싫어한다	0 (0.0)	0 (0.0)	1 (0.8)	1 (0.3)
계		72 (100.0)	158 (100.0)	122 (100.0)	352 (100.0)
$\chi^2=8.77$ N·S					
니 트 웨 어 에 대 한 관 심	전해 비해 아주 관심이 많아졌다	14 (19.2)	32 (20.3)	21 (17.2)	67 (19.0)
	전에 비해 관심이 많아진 편이다	29 (39.7)	79 (50.0)	54 (44.3)	162 (45.9)
	전과 다름없다	22 (30.1)	47 (29.7)	40 (32.8)	109 (30.9)
	전에 비해 관심이 적어진 편이다	7 (9.6)	0 (0.0)	7 (5.7)	14 (3.9)
	전에 비해 아주 관심이 없어졌다	1 (1.4)	0 (0.0)	0 (0.0)	1 (0.3)
계		73 (100.0)	158 (100.0)	122 (100.0)	353 (100.0)
$\chi^2=18.60$ p<0.05					

<표 10> 좋아하는 손뜨기 옷의 기법

선택문항	N·%	N	%
대바늘 뜨기		294	83.3
코바늘 뜨기		27	7.6
아프간 뜨기		16	4.5
기 타		2	0.6
무응답		14	4.0
계		353	100.0

하였으며<표 10>, 선택할 수 있는 니트웨어의 소재로서는 「순수 양모」18.7%, 「양모와 합성 섬유의 혼방」17.4%, 「순수 면」14.5%, 「면과 탄 섬유의 혼합」13.8%, 「마와 탄 섬유의 혼방」12.2%<표 11> 등으로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선택할 수 있는 니트웨어의 소재에 대한 학력별 크로스 분석을 보면 <표 12>와 같이 대졸 이상에서 고르게 그 선택의 폭이 넓음을 알 수 있어 앞으로 고학력층에서는 보다 다양한 소재의 개발이 뒤따라야 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

<표 11> 선택할 수 있는 니트웨어의 소재

선택문항	N · %	N	%
순수 양모		231	18.7
양모와 합성섬유의 혼방		215	17.4
순수 합성 섬유		22	1.8
순수 실크		64	5.2
실크와 땀 섬유의 혼방		101	8.2
순수 면		179	14.5
면과 땀 섬유의 혼방		171	13.8
순수 마		101	8.2
마와 땀 섬유의 혼방		151	12.2
계		1235	100.0

※ 다답형 문항

<표 13> 니트웨어의 구입 경로

선택문항	N · %	N	%
직접 떼서 입는다		37	10.5
전문인에게 제작을 맡긴다		15	4.2
기성복을 구입한다		270	76.5
무 응 답		31	8.8
계		353	100.0

<표 12> 학력별 선택할 수 있는 니트웨어의 소재

N(%), N=349

선택문항	학력별	고	대	대	계
		졸	학	졸	
		이	(재)	이	
		하		상	
순수 양모		48 (59.2)	98 (61.2)	84 (77.8)	230 (65.9)
양모와 합성섬유의 혼방		41 (50.6)	109 (68.1)	63 (58.3)	213 (61.0)
순수 합성섬유		4 (4.9)	9 (5.6)	9 (8.3)	22 (6.3)
순수 실크		10 (12.3)	14 (8.7)	40 (37.0)	64 (18.3)
실크와 땀 섬유의 혼방		16 (19.8)	41 (25.6)	44 (40.7)	10 (28.9)
순수 면		36 (44.4)	67 (41.9)	75 (69.4)	178 (51.0)
면과 땀 섬유의 혼방		32 (39.5)	87 (54.4)	51 (47.2)	170 (48.7)
순수 마		18 (22.2)	43 (26.9)	40 (37.0)	101 (28.9)
마와 땀 섬유의 혼방		23 (28.4)	81 (50.6)	47 (43.5)	151 (43.2)

※ 다답형 문항



3) 니트웨어의 구입·소유·착용 실태

니트웨어의 구입 경로를 묻는 질문에는 「기성복을 구입한다」가 76.5%로 아주 높고<표 13>, 소유 의복 중의 니트웨어의 비율은 「니트웨어는 적은 편이다」하고 응답한 사람이 76.5%로 가장 높았다<표 14>. 또한 소유하고 있는 니트웨어의 벌 수는 「1~3벌」이 55.5%, 「4~6벌」27.7%의 순이었다<표 15>. 그리고 소유 니트웨어의 종류를 묻은 문항에서는 「스웨터」25.3%, 「가디건」22.8%, 「조끼」21.7%, 「투피스」10.7%, 「치마」8.8%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6>.

니트웨어의 착용 실태는 계절별 착용 실태와 용도별 착용 실태의 두 가지를 알아보았다. 계절별 착용 실태는 「겨울」35.3%, 「가을」26.2%, 「봄」20.8%, 「여름」16.4%로 나타났고<표 17>, 용도별 착용 실태에서는 「정장·외출복」41.2%, 「놀이 등의 외출복」34.8%, 「평상복」21.6%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8>. 이는 니트웨어의 착용이 점차 보편화 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듯이 느껴진다.

<표 14> 소유 의복 중의 니트웨어의 비율

선택문항	N·%	N	%
니트웨어는 전혀 없다		8	2.3
니트웨어는 적은 편이다		270	76.5
니트웨어가 절반쯤 된다		51	14.4
니트웨어가 많은 편이다		24	6.8
계		353	100.0

<표 15> 소유 니트웨어의 벌 수

선택문항	N·%	N	%
전혀 없다		8	2.3
1벌 ~ 3벌		196	55.5
4벌 ~ 6벌		98	27.7
7벌 ~ 9벌		32	9.1
10벌 이상		19	5.4
계		353	100.0

<표 16> 소유 니트웨어의 종류

선택문항	N·%	N	%
조끼		253	21.7
스웨터(풀오버)		294	25.3
가디건		266	22.8
원피스		51	4.4
치마		102	8.8
바지		12	1.0
투피스		125	10.7
쓰리피스		30	2.6
코트		24	2.1
니트웨어는 전혀 없다		7	0.6
계		1164	100.0

※ 다답형 문항

<표 17> 니트웨어를 입는 계절

선택문항	N·%	N	%
봄		161	20.8
여름		127	16.4
가을		202	26.2
겨울		273	35.3
니트웨어는 입지 않는다		10	1.3
계		773	100.0

※ 다답형 문항

<표 18> 니트웨어를 입는 경우

선택문항	N·%	N	%
정장·외출복으로 입는다		175	41.2
놀이 등의 외출복으로 입는다		148	34.8
집안에서의 평상복으로 입는다		92	21.6
니트웨어는 전혀 입지 않는다		10	2.4
계		425	100.0

※ 다답형 문항

4) 니트웨어에 대한 선택 기준

조사 대상자들의 니트웨어의 선택 기준은 앞으로의 니트웨어의 디자인 개발의 방향을 파악하기 위한 직접적인 요소들이다. 연구자는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니트웨어를 선택할 때 중요시하는 점」을 비롯하여, 디자인, 짜임새, 무늬, 장식, 실루엣, 색상, 제작 형태 등 10개의 설문을 작성하였다.

그 첫번째 설문인 「니트웨어를 선택할 때 중요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피조사자의 대부분(79.3%)이 「디자인(모양·색깔)」임을 알려 주었다(표 19). 그리고 이 결과와 피조사자의 일반적 속성과는 별로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좋아하는 니트 디자인」에 관한 물음에는 전체의 58.9%가 「단순하고 활동적인 디자인」이라 지적하였고, 「우아하고 고전적인 디자인」에는 16.2%, 「정숙하고 고전적인 디자인」에는 15.0%가 반응했다(표 20). 또한 설문과 피조사자의 속성과의 크로스 분석에서는 「나이」와 「결혼」 부분에서 모두  $p < 0.001$  수준에서 유의적인 관계가 있었다(표 21). 이(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순하고 활동적인 디자인」은 20대 이하에서 68.2%로, 또 미혼자에서 71.2%로 평균 이상의 반응이 보이고, 「우아하고 고전적인 디자인」은 30대(20.8%), 40대 이상(23.7%)과 기혼자(20.3%)에서 각각 다른 층보다 높은 반응이 보이며, 「정숙하고 고전적인 디자인」

은 30대에서 18.2%로 평균보다 높은 반응이 보였다. 한편 선택 문항 중 가장 낮은 「특별한 기호없이 유행하는 디자인」(8.6%)에서는 40대 이상의 여성에서 17.1%로 비교적 높은 반응이 보였다.

〈표 19〉 니트웨어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선택문항	N·%	N	%
디자인(모양·색깔)		280	79.3
만들새		26	7.4
소재(재료)		34	9.6
가격		4	1.1
무응답		9	2.6
계		353	100.0

〈표 20〉 좋아하는 니트웨어의 디자인

선택문항	N·%	N	%
단순하고 활동적인 디자인		208	58.9
정숙하고 고전적인 디자인		53	15.0
우아하고 고전적인 디자인		57	16.2
특별한 기호없이 유행하는 디자인		30	8.5
무응답		5	1.4
계		353	100.0

〈표 21〉 나이별·기혼 미혼별 좋아하는 니트웨어의 디자인

선택문항	속성별 구분	나 이 별				결 혼 여 부		
		20대	30대	40대	계	기혼	미혼	계
		이하		이상				
단순하고 활동적인 디자인	133 (68.2)	37 (48.0)	38 (50.0)	208 (60.0)	97 (50.5)	111 (71.2)	208 (59.8)	
정숙하고 고전적인 디자인	32 (16.4)	14 (18.2)	7 (9.2)	53 (15.0)	30 (15.6)	23 (14.7)	53 (15.2)	
우아하고 고전적인 디자인	23 (11.8)	16 (20.8)	18 (23.7)	57 (16.4)	39 (20.3)	18 (11.5)	57 (16.4)	
특별한 기호없이 유행하는 디자인	7 (3.6)	10 (13.0)	13 (17.1)	30 (8.6)	26 (13.6)	4 (2.6)	30 (8.6)	
계	195 (100.0)	77 (100.0)	76 (100.0)	348 (100.0)	192 (100.0)	156 (100.0)	348 (100.0)	
				$x^2=33.57$	$p<0.001$	$x^2=22.25$		$p<0.001$

「좋아하는 나트웨어의 짜임새(무늬)」에서는 「간단한 무늬가 있는 것」이 68.3%로 높았고, 「무늬가 전혀 없는 것」(14.4%), 「여러가지 무늬가 있는 것」(5.7%)의 순이었다<표 22>. 이 결과는 피조사자의 속성에 따른 분석과도 비슷하였다.

그 다음, 「나트웨어의 무늬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한 설문에서는 「무난한 것을 고르기 때문에」(32.6%), 「개성을 강조하기 때문에」(23.5%), 「체형을 고려하기 때문에」(21.5%) 등으로 분포가 분산되었다<표 23>. 그리고 직업과 개인 용돈별 속성과의 크로스 분석에서 모두  $p < 0.05$ 의 수준에서 유의적인 관계가 있었다.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업별로는 「무난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직업인 주부(22.5%)에서 가장 낮고, 「예쁜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학생층(20.6%)이 평균보다 높았다. 또한 「체형을 고려하는 사람」은 학생층(17.4%)을 제외한 주부(직업을 가진 주부 포함)층에 높았고, 「개성을 강조하는 사람」은 직업을 가진 주부층에서 높았다(35.2%).

한편, 개인 용돈별로는 「무난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3만원 미만」(52.3%)으로 용돈이 적은 층에서, 「유형을 따르는 사람」은 「20만원 이상」(9.7%)의 용돈이 가장 많은 층에서, 「개성을 강조

<표 22> 좋아하는 나트웨어의 짜임새(무늬)

선택문항	N · %	N	%
무늬가 전혀 없는 것		51	14.4
간단한 무늬가 있는 것		241	68.3
여러가지 무늬가 있는 것		20	5.7
무늬가 입체적으로 돌출된 것		32	9.1
무응답		9	2.5
계		353	100.0

<표 23> 나트웨어의 무늬를 선택하는 기준

선택문항	N · %	N	%
무난한 것		115	32.6
예쁜 것		57	16.2
체형을 고려하므로		76	21.5
유형을 따르기 위하여		12	3.4
개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83	23.5
무응답		10	2.8
계		353	100.0

<표 24> 직업별 무늬를 선택하는 기준

선택문항	학력별				계
	직업인	학생	주부	계	
무난한 것	16 (22.5)	57 (36.8)	42 (35.9)	115 (33.5)	
예쁜 것	7 (9.9)	32 (20.6)	18 (15.4)	57 (16.6)	
체형을 고려하므로	20 (28.2)	27 (17.4)	29 (24.8)	76 (22.2)	
유형을 따르기 위하여	3 (4.2)	2 (1.3)	7 (6.0)	12 (3.5)	
개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25 (35.2)	37 (23.9)	21 (17.9)	83 (24.2)	
계	71 (100.0)	155 (100.0)	117 (100.0)	343 (100.0)	

$\chi^2=16.44$        $p < 0.05$

<표 25> 개인용돈별 니트웨어의 무늬를 선택하는 기준

N(%)

선택문항	개인용돈별	3만원	3~6	6~10	10~20	20만원	계
		미 만	만원	만원	만 원	이 상	
무난한 것		23 (52.3)	23 (31.9)	44 (35.2)	18 (29.5)	7 (17.1)	115 (33.5)
예쁜 것		9 (20.4)	6 (8.3)	23 (18.4)	12 (19.7)	7 (17.1)	57 (16.6)
체형을 고려하므로		8 (18.2)	19 (26.4)	29 (23.2)	14 (22.9)	6 (14.6)	76 (22.2)
유행을 따르기 위하여		0 (0.0)	4 (5.6)	2 (1.6)	2 (3.3)	4 (9.7)	12 (3.5)
개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4 (9.1)	20 (27.8)	27 (21.6)	15 (24.6)	17 (41.5)	83 (24.2)
계		44 (100.0)	72 (100.0)	125 (100.0)	61 (100.0)	41 (100.0)	343 (100.0)

$\chi^2=30.53 \quad p<0.01$

<표 26> 니트웨어에 부착된 장식물에 대한 생각

선택문항	N·%	N	%
니트웨어에 장식물의 부착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83	23.5
약간의 부착물은 니트웨어에 변화를 주니까 좋다		235	66.6
니트웨어를 우아하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면 많은 부착물도 상관없다		28	7.9
유행의 추세라면 부착물이 많아도 상관없다		2	0.6
무응답		5	1.4
계		353	100.0

하는 사람도 「20만원 이상」(41.5%)의 용돈이 가장 많은 층에서 높게 반응하고 있었다<표 25>.

「니트웨어에 부착된 장식물에 대한 생각」은 <표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니트웨어에 변화를 주는 약간의 부착물에는 많은 사람(66.6%)이 긍정적이었으나, 많은 부착물에는 찬성하는 수는 적었고, 오히려 전혀 장식물을 달지 않는 쪽에 23.5%의 반응이 있었다. 이 결과는 피조사자의 속성별 분석에서도 큰 차이가 없었다.

「선택하는 니트웨어의 실루엣」에서는 선택문항에 따라 의견이 분산되어 나타났다. 「무난한 형태의 것」에는 41.4%가, 「개성을 살릴 수 있는 형태의 것」에는 21.8%가 반응하였고, 「유행하는 형태의 것」에는 3.1% 밖에 반응하지 않았다<표 27>.

<표 27> 선택하는 니트웨어의 실루엣

선택문항	N·%	N	%
무난한 형태의 것		146	41.4
체형을 살릴 수 있는 형태의 것		77	21.8
개성을 살릴 수 있는 형태의 것		114	32.3
유행하는 형태의 것		11	3.1
무응답		5	1.4
계		353	100.0

그리고 이 설문에 대해서는 선택 문항과 학력별 간의 크로스 분석에서  $p<0.05$ 의 수준에서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표 28>. 「무난한 형태의 것」은 「대학



재학」층에서 48.7%로 높게 나타났고, 「체형을 살릴 수 있는 것」에서는 「고졸 이하」(28.9%)에서 다른 층보다 높게 나타났고,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것」에는 「대졸 이상」에서 41.9%나 되는 높은 반응이

보였다.

「선택하는 니트웨어의 일반적 형태」에서는 「H-Line」(47.6%), 「A-Line」(17.3%), 「Hourglass-Line」과 「역삼각형 Line」은 똑같이 16.4%로 나타

<표 28> 학력별 선택하는 니트웨어의 실루엣

선택문항	학력별			N(%)
	고 졸 이 하	대 학 (재)	대 졸 이 상	계
무난한 형태의 것	36 (43.4)	77 (48.7)	32 (30.5)	145 (41.9)
체형을 살릴 수 있는 형태의 것	24 (28.9)	27 (17.1)	25 (23.8)	76 (22.0)
개성을 살릴 수 있는 형태의 것	21 (25.3)	49 (31.0)	44 (41.9)	114 (32.9)
유행하는 형태의 것	2 (2.4)	5 (3.2)	4 (3.8)	11 (3.2)
계	83 (100.0)	158 (100.0)	105 (100.0)	346 (100.0)

$\chi^2=13.26 \quad p<0.05$

났다<표 29>. 또한 크로스 집계에서는 「나이별」과 「기혼·미혼별」에서  $p<0.001$ 의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표 30>.

「A-Line」은 미혼보다 기혼에서 25.3%로 3배 이상의 반응이 보였고, 특히 「40대 이상」에서 36.0%의 높은 반응이 보였다. 「H-Line」은 「20대 이하」에서 50.8%로 약간 높은 반응이 보였을 뿐이고, 「Hourglass-Line」은 「20대 이하」(17.9%)에서, 또 「역삼각형 Line」은 기혼보다 미혼에서, 나이별로는 「20대 이하」와 「30대」에서 평균 이상의 반응이 보였다.

「선택하는 니트웨어의 색상」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색상」이 71.4%, 「체형을 고려한 색상」(3.9%)이나, 「더러움이 타지 않는 색상」(2.3%)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표 31>.

그리고 「좋아하는 니트웨어의 색상 배합」에 있어서는 「비슷한 색들의 배합」(53.8%), 「순수한 단

색」(24.1%), 「반대색(보색)들의 배합」(11.9%), 「다양한 색들의 배합」(7.1%)의 순이었다<표 32>.

「선택하는 니트웨어의 제작 방법」은<표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손으로 뜯 것」(24.4%)과 「기계로 뜯 것」(21.5%)이 비슷한 반응을 얻은데 비해 「어느 쪽이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53.0%로 높았

<표 29> 선택하는 니트웨어의 일반적인 형태

선택문항	N·%	N	%
A-line		61	17.3
H-line		168	47.6
Hourglass-line		58	16.4
역삼각형 line		58	16.4
무응답		8	2.3
계		353	100.0

다. 그리고 이 문항은 나이별 분석에서 기호가 엇갈려 나왔다(p<0.01).

「손으로 뜯는 것」에는 「40대 이상」(39.0%)에서

선호가 높고, 「기계로 뜯는 것」에는 「30대」(32.0%), 「어느 쪽이든 상관하지 않겠다」에는 「20대 이하」(56.5%)에서 높은 반응이 보였다.

<표 30> 나이별·기혼 미혼별 선택하는 니트웨어의 일반적 형태

N(%)

선택문항	속성별	나 이 별				결 혼 여 부		
	구 분	20대 이하	30대	40대 이상	계	기혼	미혼	계
A-line		20 (10.3)	14 (18.7)	27 (36.0)	61 (17.7)	48 (25.3)	13 (8.4)	61 (17.7)
H-line		99 (50.8)	35 (46.6)	34 (45.3)	168 (48.7)	88 (46.3)	80 (51.6)	168 (48.7)
Hourglass-line		35 (17.9)	11 (14.7)	12 (16.0)	58 (16.8)	32 (16.8)	26 (16.8)	58 (16.8)
역삼각형 line		41 (21.0)	15 (20.0)	2 (2.7)	58 (16.8)	22 (11.6)	36 (23.2)	58 (16.8)
계		195 (100.0)	75 (100.0)	75 (100.0)	345 (100.0)	190 (100.0)	155 (100.0)	345 (100.0)
$\chi^2=33.52$ p<0.001					$\chi^2=21.12$ p<0.001			

<표 31> 선택하는 니트웨어의 색상

선택문항	N·%	N	%
일반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색상		252	71.4
체형을 고려한 색상		72	20.4
유행하는 색상		14	3.9
더러움을 타지 않는 색상		8	2.3
무응답		7	2.0
계		353	100.0

<표 33> 선택하는 니트웨어의 제작 방법

선택문항	N·%	N	%
손으로 뜯는 것		86	24.4
기계로 뜯는 것		76	21.5
어느 쪽이든 상관하지 않겠다		187	53.0
무응답		4	1.1
계		353	100.0

<표 32> 좋아하는 니트웨어의 색상배합

선택문항	N·%	N	%
비슷한 색들의 배합		190	53.8
반대색(보색)들의 배합		42	11.9
다양한 색들의 배합		25	7.1
순수한 단색		85	24.1
무응답		11	3.1
계		353	100.0

5) 니트웨어에 대한 지식 : 기타 의견

조사 대상자가 알고 있는 니트웨어에 대한 지식으로는 손뜨기 옷의 장점과 기계뜨기 옷의 장점에 관하여 알아 보았고, 그 밖의 참고할 의견으로는 조사 대상자의 니트웨어 제작 능력, 니트웨어 착용시의 외형 등 3가지 문항으로 알아 보았다.

조사 대상자가 지니고 있는 니트웨어에 관한 지식 중 손으로 뜯는 니트웨어의 장점에 관한 문의에서는 <표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재, 무늬, 뜨기 기법을 독특하게 살릴 수 있으므로」에 44.2%, 「정

〈표 34〉 나이별 선택하는 니트웨어의 제작 방법

N(%)

선택문항	구 분	20대 이하	30대	40대 이상	계
	손으로 뜬 것		22 (21.3)	14 (18.7)	30 (39.0)
기계로 뜬 것		38 (19.3)	24 (32.0)	14 (18.2)	76 (21.8)
어느쪽이든 상관하지 않겠다		117 (59.4)	37 (49.3)	33 (42.8)	187 (53.6)
계		197 (100.0)	75 (100.0)	77 (100.0)	349 (100.0)

$\chi^2=16.14$      $p<0.01$

〈표 35〉 손으로 뜬 니트웨어의 장점

선택문항	N · %	N	%
정성이 들어 있어 가치가 있으므로		103	29.2
보온성이 우수하므로		25	7.1
소재, 무늬, 뜨기방법을 독특하게 살릴 수 있으므로		156	44.2
풀어서 다시 뜰 수 있으므로		7	2.0
같은 옷이 없어 회소가치가 있으므로		47	13.3
무 응 답		15	4.2
계		353	100.0

〈표 36〉 기계로 뜬 니트웨어의 장점

선택문항	N · %	N	%
균일한 뜨임새로 고운 질감을 살릴 수 있으므로		177	50.1
유행의 실루엣을 잘 살릴 수 있으므로		69	19.6
고급스럽게 보이므로		30	8.5
질량감이 없어서 맵시를 살릴 수 있으므로		64	18.1
무 응 답		13	3.7
계		353	100.0

성이 들어 있어 가치가 있으므로」에 29.2%가 반응하고 있고, 옛날부터 교육할 때 강조되어온 「보온성」이나 「모사의 재활용」의 장점에 관해서는 각각 7.1%와 2.0% 밖에 반응하지 않았다. 또한 기계로 뜬 니트웨어의 장점에 관한 무늬에서는 「균일한

뜨임새로 고운 질감을 살릴 수 있으므로」에 50.1%가 반응하였다〈표 36〉.

이상 두 문항은 학력과의 크로스 분석의 결과에서 서로 유의적인 관계가 없었다〈표 37〉.

여기서 보면 손뜨기의 경우는 「정성이 들어 있어

가치가 있으므로」라는 의견에서는「대학교 재학」(35.0%)에서 평균보다 높은 반응이 있었고,「소재, 무늬, 뜨기 기법을 독특하게 살릴 수 있으므로」라는 의견은 유독「대졸 이상」에서 55.3%의 높은 반응이 보였다.

기계 뜨기의 경우는「균일한 짜임새로 고운 질감을 살릴 수 있으므로」라는 의견은「대졸 이상」(55.9%)에서 단 층에 비해 약간 높았고,「유행의 실루엣을 잘 살릴 수 있으므로」라는 의견은「고졸 이상」층(25.0%),「고급스럽게 보이므로」라는 의견은「고졸 이하」(13.7%)에서 평균보다 높았다. 또한

「질량감이 없어서 맴시를 살릴 수 있으므로」라는 의견은「대학 재학」층(20.5%)에서 평균보다 약간 높을 뿐이었다.

「니트웨어의 제작 능력」에 대한 물음에는 53.3%가「만들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표 38).

「니트웨어를 입었을 때 바라는 외형」에 대한 의견에서는(표 39)에서 보는 바와 같이「날씬하게 보이게」에서 63.2%로 가장 높게 반응하고 있었다.

한편 기성 니트웨어에 치수가 부착될 경우를 가상하여 그 활용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는「본인의

<표 37> 학력별 손뜨기의 장점과 기계뜨기의 장점에 대한 의견 N(%)

선택문항		학력별			계
		고 졸 이 하	대 학 (재)	대 졸 이 상	
손 뜨 기 옷 의 장 점	정성이 들어 있어 가치가 있으므로	22 (28.9)	55 (35.0)	26 (25.3)	103 (30.7)
	보온성이 우수하므로	10 (13.2)	8 (5.1)	7 (6.8)	25 (7.4)
	소재, 무늬, 뜨기 기법을 독특하게 살릴 수 있으므로	31 (40.8)	66 (42.0)	57 (55.3)	154 (45.8)
	풀어서 다시 뜰 수 있으므로	2 (2.6)	2 (1.3)	3 (2.9)	7 (2.1)
	같은 옷이 없어 회소가치가 있으므로	11 (14.5)	26 (16.6)	10 (9.7)	47 (14.0)
계		76 (100.0)	157 (100.0)	103 (100.0)	336 (100.0)
$\chi^2=12.58$ N·S					
기 계 뜨 기 옷 의 장 점	균일한 짜임새로 고운 질감을 살릴 수 있으므로	37 (46.3)	83 (53.2)	57 (55.9)	177 (52.4)
	유행의 실루엣을 잘 살릴 수 있으므로	20 (25.0)	30 (19.2)	19 (18.6)	69 (20.4)
	고급스럽게 보이므로	11 (13.7)	11 (7.1)	8 (7.8)	30 (8.9)
	질량감이 없어서 맴시를 살릴 수 있으므로	12 (15.0)	32 (20.5)	18 (17.7)	62 (18.3)
계		80 (100.0)	156 (100.0)	102 (100.0)	338 (100.0)
$\chi^2=7.76$ N·S					



치수보다 약간 여유 있는 것을 고르기 위해 참고하겠다」는 의견이 70.3%로 가장 높았고, 「입어보고 고르므로 니트웨어에 부착된 치수는 참고가 안될 것이다」하는 의견이 14.4% 이었다<표 40>.

<표 38> 니트웨어 제작 능력

선택문항	N · %	N	%
예(만들어 본 적이 있다)		188	53.3
아니오(만들어 본 적이 없다)		160	45.3
무응답		5	1.4
계		353	100.0

<표 39> 니트웨어를 입었을 때 바라는 외형

선택문항	N · %	N	%
키가 커 보이게		70	19.8
키가 작아 보이게		2	0.6
날씬하게 보이게		223	63.2
살이 쪼 보이게		16	4.5
외형을 고려치 않는다		34	9.6
무응답		8	2.3
계		353	100.0

<표 40> 기성 니트웨어에 치수가 부착될 경우의 활용

선택문항	N · %	N	%
본인의 치수와 꼭 맞는 것을 고르겠다		47	13.3
본인의 치수보다 약간 여유있는 것을 고르기 위해 참고하겠다.		248	70.3
입어보고 고르므로 니트웨어에 부착된 치수는 참고가 안될 것이다		51	14.4
무응답		7	2.0
계		353	100.0

### Ⅲ. 결 론

인류의 문화 그리고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 온 니트웨어는 1980년대로 들어서면서부터 패션 경향에 뚜렷한 존재로 부상되기 시작하였다. 인류가 의복 제작의 단순한 기술로써 니트웨어를 제작했을 때에는 단지 옷으로서의 개념을 추구하였을 뿐이지만, 새로운 조형 예술 분야에 의상이 개입되기 시작하면서, 니트웨어도 작품성·예술성을 추구하는 작품들이 선을 보이게 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현대 문명·문화의 시대 흐름과도 발 맞추어 패션계에 새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니트웨어가 지니고 있는 포근함과 우아함 그리고 그것을 입는 사람을 돋보이게하는 특성은 니트웨어에 응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디자인 요소가 있다는 것이며, 현대인의 개성화 추구 요구에 부응하는 아이템으로서도 니트웨어가 디자인 개발에 중요한 몫을 차지하게 된다. 특히, 소재에 의한 변화, 조직에 의한 변화는 일반 직물에서의 느낌과는 아주

다른 점이 있으며, 따라서 니트웨어가 다양화를 추구하는 인간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니트웨어가 지니고 있는 특성을 문헌 및 사진을 통해 연구·고찰해 보았고, 실증적인 조사를 통하여 여성들이 지니고 있는 니트웨어에 관한 착용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앞으로의 우리나라 패션 중 니트웨어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와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니트웨어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발전과정과 종류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인류의 발생과 더불어 시작된 니트는 손뜨기 중 대바늘 보다는 코바늘뜨기가 먼저 시작된 것으로 추측된다. 뜨기 기법의 초기 발달 형태로는 북구의 Sprang이 있다. 중동지역 근방이 편물의 발상지로 추측되며, 아라비아인들의 이집트 정복으로 기술교류가 시작되어 이슬람 문화가 발달되면서 유럽의 각 지역으로 퍼져가게 되었다. 1589년

William Lee에 의한 양말 편기의 발명으로 기편이 유행·발달하게 되면서 손뜨기는 점차 쇠퇴해가기 시작하였다. 오늘날에는 수공예 부흥 운동에 의한 손뜨기와, 컴퓨터에 의한 전자식 편기로 기계뜨기가 모두 활발하게 육성되어 니트웨어의 다채로움을 볼 수 있다.

2) 니트웨어는 크게 손뜨기와 기계뜨기의 두 종류로 구분되며, 손뜨기는 다시 대바늘 뜨기, 코바늘 뜨기, 아프간 뜨기, 레이스 뜨기 등으로 분류되고, 기계뜨기는 수편기와 기편기로 분류된다.

니트웨어의 종류는 그 기준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나며, 사용자, 용도, 형태 등에 의해 세세히 분류된다.

2. 우리나라 여성의 니트웨어에 대한 착용 실태 조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니트웨어는 입기에 편한 것, 입어서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것을 선호하고, 전에 비해 니트웨어에 관한 관심이 많아졌으며, 니트웨어가 더욱 개발되어 더 많이 입을 것이라고 전망되었다. 여러 소재에 각기 다양하게 나타난 반응에서 특히 고허력층이 그 선택의 폭이 넓게 나타나, 앞으로의 고허력층에서는 보다 다양한 소재 개발이 뒤따라야 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 같았다.

2) 니트웨어는 기성복을 직접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고, 소유하고 있는 벌수는 적었지만, 4계절에 있어서 그 활용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다양한 용도로 착용되고 있어서, 니트웨어의 착용이 점차 보편화 될 것을 시사하고 있는 듯 하다.

3) 니트웨어 선택시에는 디자인(모양·색깔)을 중시하며, 간단한 무늬가 있는 것을 좋아하였다.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실루엣은 고허력층에서 높게 반응하고 있었고, 소재의 선택에서처럼 앞으로의 고허력층을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변화가 추구되어야 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 같다.

또, 일반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색상을 선호하며, 니트웨어의 제작 형태는 손뜨기나 기계뜨기를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 니트웨어가 점차 특수 의복이 아니라 일반 의복으로서 현대인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음이 보여졌다.

4) 손으로 뜬 니트웨어의 장점을 소재, 무늬, 뜨기 기법을 독특하게 살릴 수 있다는 것에 나타났고, 저학력층이 보온성을 장점으로 꼽는 것에 비교해

고학력층으로 갈수록 디자인을 중시하는 것을 보면, 니트웨어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계뜨기에 있어서는 균일한 뜨임새로 고운 질감을 살리는 것을 장점으로 보고 있으며, 손뜨기의 것과 비교해 보면 앞으로의 디자인 개발의 요소가 많은 쪽이 손뜨기임을 시사하고 있는 듯 하다.

이상과 같이 현대 사회가 과학기술에 의해 발달되면서 점차 경제적인 수준이 높아지고, 고허력을 추구하는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점차 다양한 디자인을 요구하는 시대의 흐름이, 독특한 변화를 창조해 내는 니트웨어에 대한 관심을 높아지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니트웨어 메이커 및 기업에서는 현대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것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전문 디자이너에 의한 디자인 개발의 현실화를 급속히 이뤄야 하며, 니트산업 또한 노동집약적인 아닌 지식·기술집약적 산업으로의 육성화가 급속히 이뤄져야 하리라 본다. 그리고 니트웨어 디자인 개발을 위해서는, 그 선호 정도 및 실태분석을 통한 분석 자료와의 밀접한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모든 연령대 및 남성에 대한 착용 실태 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현시점에서만의 조사뿐만 아니라 연속적인 조사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본 조사의 변인 중에서 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높게 분포되어 있으므로, 좀 더 평준화된 조사분석을 위하여 모든 소득층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참 고 문 헌

- 김은숙. "위편직물의 편환 밀도에 따른 물성변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1987.
- 이순홍. 「기초 편조」. 서울: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1979.
- 이순홍외. 「편물」. 서울: 문교부, 1987.
- 한국섬유공학회. 「섬유제품 지침서-스웨터」. 서울: 한국섬유산업 연합회, 1988.
- \_\_\_\_\_. 「섬유제품 지침서-편물제 셔츠」. 서울: 한국섬유산업 연합회, 1988.
- 한국섬유산업 연합회. 「섬유산업 再跳躍의 길」. 서울: 한국섬유산업 연합회, 1984.

シルバ編物研究会。「編物教科書」。東京：シルバ編物研究会總本部, 1970.

田中千代。「服飾事典」。東京：同文書院, 1969.

Harlow, Eve. *The Art of Knitting*. 東京：(株)日本ヴォーグ社, 1979.